

의안번호	제393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월 일 (제 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정책복지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9월 6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93
----------	-----

제안연월일 : 2023년 9월 6일
제안자 : 정책복지위원장

1. 제안 이유

- 2022년 12월, 국민의 염원을 담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국회의원 28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연내 제정되지 못할 경우 국회 일정상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있음.
-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공익을 위해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무한 희생을 감수해 온 중부내륙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위로임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중차대한 일이며,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만성적인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의 근거법이 될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연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안 처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국회는 연내 반드시 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2. 붙임 : 건의문

3. 보낼 곳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 대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난해 12월 국민의 염원을 담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국회의원 28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역은 다목적댐 건설과 세 곳의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수십 년간 보호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런 증척된 규제로 인하여 중부내륙지역민은 공익을 위해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무한 희생을 감수하여왔고,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은 중부내륙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어온 중부내륙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위로임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고 있는 관광객의 발길을 국내로 돌려 만성적인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 할 수 있는 탁월한 방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지 못할 경우 국회 일정상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특별법안은 조속히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만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지역 차별적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천만 중부내륙지역민과 함께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이 연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 개최 등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 처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9월 중으로 반드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국회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의 근거법이자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임을 인식하고, 여야의 정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반드시 금년 내 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9. 6.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